

우리 시대의 영어만능주의

신 문 수
(서울대학교)

Shin, Moon-Su. (2009). The 'Almighty English' phenomenon in our era.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2, 78-94.

The ability to command fluent English has long been seen as a way of achieving status, power, and economic prosperity in Korean society. As English is increasingly established as a global *lingua franca*, this tendentious view of English as an almighty tool for personal succes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as gripped the mind of Korean people more strongly, driving the entire society into English learning fever. It also serves as a driving force for such controversial agendas as the governmental policy of introducing English immersion programs in high schools, the proposal to adopt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or the urge to lecture in English in college classes. However, boosting this idea that English competence is everything may result in the loss of the opportunity to cultivate humanistic knowledge and culture individually and the impoverishment of indigenous culture and national heritage collectively. Another often overlooked source for promoting this social myth is the discipline of English education itself, which has been professionalized in its emphasis on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ies and techniques, particularly in EFL situations as in Korea. Predominant interest in how to teach rather than what or why to teach is likely to strip the study of a language of its expressive and aesthet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critical or comparative thinking. The functionalism prevailing in the discipline of English education inevitably influences the nation's teacher training programs, whose overemphasis on techniques is likely to reduce English teachers to mere 'teaching machines,' or experts without souls.

Key Words: English education, adoption of English as an official language, functionalism, English teaching method, teacher training program, Ivan Illich, Max Weber

I. 영어 열풍의 배경

영어공교육 강화 정책을 둘러싼 근래의 분분한 논의에서 세삼 확인하는 것은 사안의 근본을 짚어보는 철학의 빈곤이다. 정책 당국자는 정책 목표의 제시와 그 성과에만 집착하여 그 현실적 타당성이나 실천 방안의 교육적 함의 및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 별로 고려하지 않았음을 드러냈다. 그 졸속성은 무엇보다 공교육을 통한 영어 능력 신장의 획기적 정책으로 제시되었던 영어몰

입교육안이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치자 그 시행이 철회된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문제가 그런 졸속한 성과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정책입안자는 물론 영어교육 분야의 관련자들,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언어의 본질, 언어와 사고의 관계, 언어와 국민적 정체성과 같은 영어교육의 바탕이 되어야 할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어 혹은 외국어를 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가라는 원론적 문제조차도 진지하게 논의한 경우도 드문 실정이다. 문제의 심층에는 이처럼 사태를 근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회적 관행의 부재가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밑뿌리를 더 캐본다면 효율성과 경제성을 앞세우는 도구적 기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영어교육 논쟁이 남긴 또 다른 교훈은 외국어 교수와 학습의 현실도 사회로부터 독립된 중립 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어교육 문제가 사회적 논쟁으로 비화되면서 이내 그것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으로 재편되면서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영어교육을 언어학습과 교수 기법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 중심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협소한 시각인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기실 영어 열풍이 불기 이전부터 우리사회에서 영어는 단순히 하나의 외국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영어는 중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학과목으로서 입학시험의 당락을 결정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학교 바깥에서도 각종 국가고시를 비롯하여 회사의 입사 시험 및 승진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는 필수 과목이었다. 이런 추세가 국제화·세계화의 바람을 타면서 영어능력은 사회적 성과와 출세의 중요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학식과 능력 전체를 재는 척도로 자리 잡았다. 급기야 영어실력이 한국사회의 계급 질서를 고착시키고 재생산하는 문화자본이라는 지적도 체계되기에 이르렀다.¹⁾ 이런 저간의 사정은 영어교육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서 복합적으로 살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겠으나 그것을 학습전략이나 교수방법론의 차원으로만 국한시켜 다루어 온 것이 우리 영어교육학계의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어만 잘하면 개인적으로 출세가 보장되고 나라 전체로도 국제 경쟁력이 제고된다고 생각하는 영어만능주의나 영어교육을 언어적 차원의 교수 방식으로만 좁혀서 바라보는 시각은 위에서 비친 도구적 합리성을 교조화하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태도의 한 변주이다. 물론 이 배후에는 세계어로서 영어의

1) 「한국사회에서 영어실력은 문화자본인가」(최셋별, 2007) 참조. 이밖에도 이 논문이 실려 있는 편서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의 필진들 상당수가 한국사회에서 영어 능력이 사회적 출세와 성공의 중요 수단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면서 영어교육을 계급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 언어가 이념의 투쟁장이라는 마르크시즘적 언어관의 입장에서 영어의 특성과 영어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Holborow(1999, pp. 53-96), Pennycook(1994, pp. 107-144) 및 국제어로서의 영어가 행사하는 헤게모니가 지역의 계급 문제로 환원되어 표출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Shim과 Park(2008)도 주목된다.

가속적인 특세가 자리하고 있다. 영어의 광범위한 사용과 확산은 영어 능력의 속성적 습득을 요구했고 영어교육론자들은 이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영어교수방법론에 매달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교육을 기능적 관점으로만 보는 그런 입장이 신식민주의적 문화 정치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제국주의』의 저자인 필립슨(Robert Phillipson)은 기술공학적 영어교수 방법론의 강조 자체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든 강대국의 언어제국주의의 발현 양태의 하나이고 그것이 영어 산업을 통한 돈벌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Phillipson, 1992, p. 216). 영어의 확산은 18~19세기 영국의 제국 경영과 20세기 이후 세계열강으로서 영국과 미국의 지속적인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영어가 급속하게 세계어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전적으로 신식민주의적 시각으로만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영어교육 종사자들을 영어제국의 침범으로만 간주하는 것 또한 지나친 생각이다. 인터넷의 확산과 정보통신의 비약적 발전이 표상하는 급격한 사회적 변화 또한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어야 한다.²⁾ 그것은 영어를 보는 시각의 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은 결과 영어가 공용어가 된 나라의 경우 식민지배 종주국의 영어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³⁾ 이런 점에서 영어가 전 지구의 공용어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은 새로운 사회 체제의 등장이라는 보다 복합적인 시각으로 볼 것을 요청한다고 하겠다.

II. 영어 공교육 정책의 허실

근래의 영어 열풍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부추겨지고 정당화되어 왔다. 국가 경영의 차원에서 교육은 물론 중요하다. 영어교육 또한 그 일환으로 중요한 정책적 고려 사항일 수 있다. 외국어 교육에 대체로 미온적이

2) 마찬가지로 세계화를 전적으로 신식민주의적 시각에서 서구화 혹은 미국화로만 비판하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와 더불어 또 다른 변수도 고려하는 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Buttigieg, 1999, p. 47). 이런 점에서 우리사회의 영어 문제를 신식민주의적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은 마찬가지로 단선적이다. 한국사회가 미군정기를 거치고 6.25이후 미국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한 역사적 사정이 그런 시각을 정당화하는 면이 있으나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그리고 최근의 수출주도형 다국적 경제체제로의 팽창은 영어가 침투한 것 못지않게 영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말의 한국사회는 신식민주의가 관찰되는 현장이면서 동시에 신식민주의에 가세하고 있는 복잡한 양상을 표출하고 있는데 후자의 문제는 종종 간과되고 있다.

3) 이에 대해(Buttigieg, 1999, p. 49 참조) 서구 식민제국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영어를 아프리카 민족문화의 매체로 강조하면서 영어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아체베(Chinua Achebe)나 인도의 살만 루시디(Salman Rushdie)의 영어에 대한 입장도 이런 맥락에서 있었다고 볼 수 있다(Crystal, 1998, pp. 187-194 참조).

었던 미국 사회에서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외국어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군인을 위한 외국어훈련프로그램("Army Special Training Program")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했고 1957년 스푸트니크 호 발사에 자극되어 이듬해 이른바 국가방위교육법(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수학 및 과학과 더불어 외국어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한 바 있다. 오늘의 한국사회가 교육 방식을 전면적으로 쇠태해야만 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영어의 필요성은 우선 교통과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로 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압력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는 물론 한국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다. 영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지 않은 나라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외 없이 영어 사용의 압력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로 고심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무역의 확대를 통해 일류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사회제의였다. 영어는 이렇게 선진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또한 강조되어 왔다.⁴⁾ 세계화가 밖으로부터 주어진 압력이라면 이는 한국사회 내부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 대국으로의 길이 반드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점점 고개를 들고 있지만 어쨌든 대외적 경제 활동의 필요는 영어 능력이 긴요하다는 인식을 증대시켜 왔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이 교육이 중요한 몫일진대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교육이 수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영어 공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검토를 맞출 수만은 없는 일이다.

문제는 정부의 영어교육 정책과 그 저변의 생각이 영어를 몰신화하는 영어만능주의를 조장한다는 점에 있다. 영어 전문 인력의 확충이 통상과 대외 무역에서 긴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만으로 국가경쟁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찍 생각하더라도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를 통한 기술혁신과 상품 개발, 금융 제도의 합리화, 원활한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다. 문제를 통상과 무역활동으로 좁혀 생각하더라도 그 성공적 활동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소양, 종합적 사고력과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판

4) 예컨대 삼성경제연구소(전효찬·최호상, 2006)는 「영어의 경제학」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영어의 효용성을 이렇게 요약한 바 있다: 첫째, 영어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둘째, 개인 차원에서는 한국인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글로벌 고급 인재 시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현상을 타개할 수 있다; 셋째, 언어 장벽의 극복은 '한류의 글로벌화' 등 문화·지식 산업의 세계 진출과 한국 문화나 학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영어의 경제학」, 요약 페이지).

단력 또한 영어 능력 못지않게 중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IMF 사태나 최근의 한미 FTA 협상과 소고기 파동 그리고 작금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미숙한 통상 협상을 포함하여 경제 위기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궁극적 원인이 영어능력의 부족으로 돌려지곤 했다.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해서 입은 피해가 막심함을 지적하는 한 논자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든 적이 있다.

지난 번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 정부는 미국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월 스트리트의 금융전문가들과 협상을 벌였다.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우리 대표들은 상대방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제도들과 상품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국제 금융계인지라, 우리 대표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개념들과 용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선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요 경제와 금융에 나름의 지식을 가졌고 물론 영어도 잘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실제로 협상에 들어가자, 실질적으로는 영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었다(복거일, 2003, p. 76).

인용문은 한국의 협상당이 복잡한 어려움이 영어라기보다는 결국 전문 지식의 부족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자는 영어능력의 부족이 개인은 물론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이런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이런 착각된 예증은 영어만 완벽하게 구사한다면 만사형통이라는 영어만능주의적 사고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탓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협상당의 영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 잘못이 영어교육에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제 금융제도와 그 관행을 숙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영어도 능숙한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정부의 인사 총원 정책이 일차적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사실 국익이 좌우되는 이런 막중한 임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어능력은 아무리 영어 공교육을 강화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그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 지식을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연찬된 영어능력으로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덧붙여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우리처럼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상황에서는 영어능력의 배양과 전문적 지식 및 교양의 함양이 서로 긴항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영어 학습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할수록 기본 소양을 풍요하게 하고 전문적 지식을 함양할 노력과 시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특히 지적 욕구가 왕성한 청소년기에 영어 학습에만 매달리다 보면 자칫 다른 교과를 소홀히 할 수 있고 교양의 토대가 될 폭 넓은 독서 경험도 그럴 시간도 갖지 못한 채 사회생활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문제나 경쟁력의 미흡을 영어교육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호도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교육 문제는 그것에 대한 사회적 열의를 볼모삼아 종종 정략적 이용의 대상이 되어 왔다. 영어교육도 행정의 실책이나 제도의 미비를 은폐하는 핑계거리로 활용된 갑

이 없지 않다. 이 또한 사회에 미만해 있는 영어만능주의적 사고에 편승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는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 목표 자체가 대단히 애매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영어로 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대화의 정도는 실로 천차만별일 수 있다. 무역과 통상의 현장에서 국가경쟁력을 드높일 수 있을 정도의 영어 대화 능력이라면 앞서 지적한 대로 공교육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른 한편 간단한 인사말 정도의 영어 대화 능력을 상정했다면 그것을 기르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노력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영어교육의 사회적 의의와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하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영어교육에 대한 비판의 핵심은 학생들이 영어교육을 받은 횟수에 비해 영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 있었다. 그러나 이 비판도 우리의 영어교육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별 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진 것임이 드러난다. 현행 교육과정에 따르면 학생들은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했수로는 10년에 걸쳐서 영어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외국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는데 중요한 것은 학습의 집중도와 실제 학습 시간이다. 이병민의 계산에 따르면 이 10년 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영어 학습 시간은 총 730.5시간에 불과하다(이병민, 2003, p. 119). 유아가 모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듣고 말하는 활동에만 적어도 9,000시간 정도를 쓴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제2언어 습득을 위한 몰입식 교육의 모범적인 사례로 종종 언급되는 캐나다의 불어 몰입식 교육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8학년까지는 3,800시간, 고등학교를 마칠 때까지는 최소한 5,000시간을 이수해야만 몰입교육으로 인정한다고 한다. 이렇게 장시간 동안 불어교육을 받더라도 그 성취도를 보면 듣기나 읽기에서는 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으나 말하기와 쓰기의 경우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한다(이병민, 2003, p. 114). 외국어를 ‘학습’을 통해 습득한다는 것은 이처럼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구한다.

이런 경험적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의 학생들이 10년에 걸쳐 영어교육을 받는다고 하지만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기에는 절대 시간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물론 상당수의 학생들이 사교육을 통해서 또는 텔레비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중 매체를 활용하여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 영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학교나 가정 바깥에서 영어가 쓰이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한다면 공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의 영어 능력에 대한 사회의 기대치는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영어교육 목표도 이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이병민의 지적대로 현행 교육과정 상의 각 수준별 학습 목표는 지극히 포괄적이고 학생들이 주어진 시간에 성취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 대단히 높게 설정되어 있다(이병

민, 2003, p. 120). 따라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각 학년별 수준에 합당한 구체적인 체계적인 학습 목표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영어교육의 유효성을 묻는 것은 그 후의 일일 것이다.

III. 영어공용어화론과 영어강의의 문제점

근래에 심심찮게 제기되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영어공용어화론 또한 영어만능주의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것은 기능적 실용주의로 무장한 영어만능주의이다. 세계어로서 날로 위상이 강화되어가는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서 세계화 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여 경제적 손해를 줄이자는 것이 영어공용어화론의 중요 논거이다. 요컨대 토착어인 한국어는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 되니 영어를 일성어로 도입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언어, 특히 국어(national language)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소치이다.

산업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화폐로 계량화되어 평가되고 우리는 그런 식의 사고에 젖어 있다. 그러나 돈으로 정량화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중요한 일이 많이 있는 법이다. 예컨대 가사 노동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가사 노동은 산업사회의 지속적인 재화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통상 화폐 가치로 산정되지 안 해왔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 이반 일리히(Ivan Illich)는 근대 산업사회의 특징적인 사회 현상이면서도 화폐경제 체제의 밖에 있는 이런 일들을 '그림자 노동'(shadow work)이라고 부른 바 있다(Illich, 1981, pp. 20-50). 일리히가 이 용어를 긍정적으로 쓴 것만은 아니지만 그것은 한 나라의 언어 문제를 경제적 잣대로만 고려하는 시각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언어의 표준화 혹은 국어의 제정은 서구 근대사회 형성의 초석이었다. 표준화된 국어의 체계적 교육을 통해 지방의 방언이나 부족어를 단일한 언어로 통합하는 것은 사회 질서의 유지와 관리의 바탕이었다. 예컨대 콜럼버스가 신대륙 여정을 떠난 것과 동시에 스페인의 문법학자 네브리하(Elio Antonio de Nebrija)는 『카스티야 문법』(Gramática castellana)을 출간하여 이사벨라 여왕에게 스페인 제국 건설의 유용한 도구로 헌정했다. 일리히가 주목하고 있는 대로 언어 통일을 통한 일상적 삶의 국가 관리를 표상하는 네브리하의 문법서는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보다 스페인 제국 건설에서 더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했으나 모든 것을 경제적 가치로 재단하는 시각에서는 그 중요성이 잊혀진 일종의 '그림자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⁵⁾

5) 다음 인용은 일리히의 주장을 더욱 분명히 드러낸다: "국민국가의 기원을 논하는 모든 역사가는 모국어의 강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경제학자들은 이 가르쳐진 모국어가 근대에 특유한 상품 중 최초의 것, 곧 그 뒤의 모든 '기본적 필요'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일반적으로 간과하고 있다"(Illich, 1981, p. 109).

되풀이하기니와 국어는 이질적인 사회를 하나로 묶어 국가적 질서를 구축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는 언어의 역할을 오히려 소극적으로 파악한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한 나라의 국어는 근대 국민국가의 전통과 문화 창조 의 원동력이었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의 표현대로 국가를 ‘상상된 공동체’라고 했을 때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유적 경험, 문화, 전통은 중요하다. 이들은 언어를 통해 문화적 자산으로 구체화되고 그렇게 형성된 문화 전통은 다시금 공동체 의식을 재생산하는 밑거름이 된다. 스위스나 캐나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가 국민적 정체성의 절대적 요건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동적 삶의 경험의 저장고이자 공동체 의식을 재생산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한 나라의 국어는 국민문화 형성과 그 존속의 바탕임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통해 국어의 상실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궁핍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언어를 빼앗긴 결과 우리의 고유한 문화전통은 억압되고, 멸실되고, 변질되었다. 전통의 단절로 인한 문화적 삶의 궁핍화는 해방 이후 한국사회를 이끈 지렛대였던 과행으로 몰고 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화적 상실감을 자신의 세대적 경험으로 종종 표출한 바 있는 시인 김수영은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거대한 뿌리』에서 영국인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 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rs)을 읽은 충격을 고백하고 있다. 구할만 할 한국의 사회상을 소상히 전하고 있는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을 통해 김수영은 신산스러운 현대사를 살아온 한국에 뿌리 깊은 전통이 있음을 확인하고 “늦주발보다 더 짙은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다”고 외치면서,

버드 비숍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고 읊고 있다. 김수영의 격정적 언어는 지나간 삶의 구체적 세목, 다시 말해 우리의 현재적 삶의 거대한 밑뿌리 전통을 확인한 흥분과 그 확인이 남의 나라 사람이 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에 대한 자탄의 소산이다. 그는 잊혀진 전통의 풍요로움을 확인하면서 그 단절의 깊음을 또한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를 공용어로 쓴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필시 김수영보다 훨씬 충격적으로 문화의 산일과 전통문화의 단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삶의 착종과 손실은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우려에 대해 김수영이 아쉬워 한 과거의 전통은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 것 없는 봉건 잔재로서 계승할 가치 없는 “마른 지푸라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대꾸한 논자도 있었다(북거일, 2003, p. 107). 이 또한 계량적 사고의

소치이다. 영광에 찬 과거만이 아니라 김수영이 쓴 것처럼 “더러운 역사”도 모두 우리 삶의 밑뿌리로서 소중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가 말하는 문화와 전통이란 유형적인 자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물을 보는 독특한 인식 태도, 삶의 방식, 혹은 세계관과 연관된 무형적인 것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그것은 한국어를 통해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하는 한국인에게만 고유한 어떤 것의 총체를 일컫는다. 한 나라의 문화는 이런 고유한 요소들을 토대로 타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보편적인 요소들을 확충해나가면서 발전해간다. 문화의 고유한 요소들이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언어적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주지하듯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라도 그 의미 영역은 언어마다 다르다. 한국어의 ‘개’와 영어의 ‘dog’은 현실의 개를 지칭하지만 의미 영역은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언어마다 대상을 구분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언어를 단순히 명명법(nomenclature)으로 볼 수 없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언어의 고유한 의미 분할 방식이 문화적 차이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른바 사피어-워프 가설(Sapir-Whorf Hypothesis)은 이런 문화적 차이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두 가지 명제를 함축하고 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언어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된다는 언어결정론(linguistic determinism)이 그 하나라면 언어의 차이가 결국 세계관의 차이를 구축한다는 언어상대성론(linguistic relativity)은 다른 하나이다. 전자의 언어결정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었지만 후자의 언어상대성론에 대해서는 수긍하는 입장이 많은 편이다(Dalby, 2002, pp. 462-489; May, 2001, pp. 133, 165). 그 세목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겠으나 아무튼 언어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에 입각한 행동에 심원한 영향을 끼친다는 핵심적 생각은 설득력 있는 통찰이다. 사피어-워프 가설은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환기시킨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인식하고 사고하고 또한 표현한다. 다시 말해 언어는 국민적 정체성은 물론 문화적 정체성 및 개개인의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통찰들은 영어의 공용어화는 물론이고 영어의 과잉 사용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을 요청한다. 영어의 공용어화는 영어를 일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나 그 결과 야기되는 사회적 혼란은 돈으로 환산하여 상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어문화적 차원으로 좁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한국어 사용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한국적인 고유한 인식과 사고방식의 소실을 초래할 수 있다. 그 소실은 우리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로도 커다란 손실이다. 한 언어가 사라지면 그 언어로 엿볼 수 있는 정신세계와 거기에 집착된 문화유산이 지구 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아메리카 원주민 언어에 대해서 연구한 마이선(Marianne Mithun)은 원주민 언어가 사라지면서 그와 더불어 원주민

들의 의식과 웅변술, 서정시와 서사시, 신화와 전설들이 멸실되었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상기시킨 바 있다.⁶⁾ 언어생태학자들이 강조하듯이 언어적 다양성의 보존은 인류의 문화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다른 언어와의 접촉을 통해서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얻는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우리와 다른 인식 방식과 사고체계를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정신적 삶도 보다 유연하고 창조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언어의 소멸은 생물종의 소멸이 지구 생태계 전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구촌 전체로 사회적 삶의 획일화와 궁핍화를 초래할 위험을 야기한다.

세계어로서의 영어의 특세는 소수자 언어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영어의 확산에 내포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서 이 점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지구촌 전체의 문화적 견지에서 본다면 이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약 5,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이 중 2,500개의 언어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균 2주에 1개의 언어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 후 한 세기가 더 지난 후에는 200여개의 언어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2002년 현재 통계로도 전 세계 인구의 2/3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수가 12개에 불과하고 소수 민족어가 급속히 소멸하고 있는 현상은 이런 전망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⁷⁾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대부분의 소수자 언어 사용자들은 모어를 버리고 영어로 언어 전환하라는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다. 이 압력은 소수 언어 사용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늘날 거의 모든 학문 분야 특히 자연과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논문을 비롯한 서적 출판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다.⁸⁾ 이는 소수자 언어 사용국이 아닌 중국, 인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영어와 동일한 문화권의 동류어(cognate language)를 쓰고 있는 경우 현상을 영어로 설명하더라도 폐해는 상대적으로 적다. 동일한 문화권일 경우 언어적 의미 분할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의미의 망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어와 비동류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문화권 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의 경우 개념의 범주화 방식이 전적으로 다른 영어로 자국의 현상을 설명하게 되니 결국 이들에게 고유한 시각과 사고방식은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한국의 식물상이나 암석에 대한 논문을 영어로 쓰게 된다면 그에

6) Mithun, M. (1999). *The Languages of Native North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P 참조.

7) Dalby, A. (2008). 『언어의 종말』 (pp. 59-83) 참조.

8) 예컨대 영어와 경쟁적으로 자국어의 보급에 나섰던 프랑스의 경우도 정부 지원을 받아 학술지에 발표하는 논문 중 영어로 쓰여진 것이 1978년에 75%, 1988년에는 80%, 1994년에는 84%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병민, 2005, p. 29); 이 밖에 Graddol(2000, pp. 87-102) 참조.

대해 영어권 사회에서 통용되는 분류 체계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분류 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한국의 고유한 식물상이나 암석의 형태는 주목받지 못하거나 아예 명명될 기회를 갖지 못해서 잊혀지고 말 가능성이 크다. 영어로 글을 쓰게 되면 우리의 것을 알릴 기회가 많아지니 오히려 문화적 풍요를 구가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근시안적이고 일면적인 시각이다. 영어로 된 자료에 의존해서 영어권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영어로 글을 쓴다면 결국 영어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표현과 문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보면 우리 고유의 표현 양식과 문화적 온축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학에서 불고 있는 영어강의 붐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우려되는 현상이다. 영어강의는 그 교육적 성과에 대한 깊은 숙고 없이 다분히 영어에 대한 사회적 열풍에 편승하여 혹은 학문의 국제화라는 명분하에 대학의 행정 당국에 의해 강력하게 권장되고 있다. 학문의 국제화는 학문의 질적 제고를 통한 자연스런 교류의 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영어강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캡퍼스에 외국인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국제화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대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이런 오도된 생각도 문제이지만 전혀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어강의가 초래하는 폐해는 실로 심각한 것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고와 표현의 매체임을 생각한다면 영어를 외국어로 습득한 교수의 경우 그가 비록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는 자명하다. 모국어를 쓰는 것처럼 깊은 사고나 섬세한 표현을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창의적이고 참신한 사유는 미세한 생각의 차이나 사안의 미묘한 뉘앙스에 대한 숙고의 과정에서 태동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상황에서 행해지는 영어 강의는 교수나 학생들 모두에게 애초에 이런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유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꼴이다. 강의가 일반적인 지식 혹은 상식화된 단편적 정보를 단순하게 전달하는 것일 뿐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것이 되지 못할 것은 불문가지이다. 교수의 영어가 유창할 경우도 이렇진대 영어능력이 미흡한 경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영어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영어능력이 약간 더 신장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공 학문의 피상적 학습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의 대학은 깊은 지식이나 창의적인 사고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 상식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범용한 기능인들만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할 염려마저 있다. 물론 영어강의를 무조건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다. 영어강의는 해당 분야 전공지식을 갖춘 외국인이나 이중 언어 사용자 혹은 그에 준하는 영어능력을 갖춘 교수에 의해 학문적 필요에 의해서 행해져야 한다.

IV. 영어교육계 및 영어교사 양성제도의 현실

오늘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영어만능주의를 그 무대의 중심에서 있는 영어교육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영어교육계는 영어습득의 기술과 방법론에 주된 관심을 기울일 뿐 그것의 교육적 문제점이나 사회문화적 함의를 아울러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미흡한 인상이다. 이런 탈맥락적인 기능주의 경향은 영어교육학의 전문화 요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 영어교육 전공자들에게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⁹⁾ 실로 응용언어학 혹은 영어교육학의 학문적 전통과 방향이 그러했다. 응용언어학이라는 용어는 1948년 미시간 대학에서 발간하기 시작한 계간 학술지 『언어 학습』(Language Learning - A Quarterly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의 부제로 쓰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언어학 지식을 언어 학습에 응용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언어학이 ‘과학적’ 학문으로 정립되고 서구세계가 식민 제국 경영의 일환으로 국어의 표준화와 그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부터라는 것이 통설이다(Pennycook, 1994, pp. 126-129). 20세기 전반기에 ‘응용’이라는 용어에 함축된 부차적 학문이라는 함의를 떨치고 그 자체로 독립된 학문적 위상을 정립하면서 응용언어학은 교수법의 과학화를 핵심적 과업으로 삼아왔다. 가령 1920년대 직접교수법 창안자인 팔머(Harold Palmer)는 음성언어를 제 1의적인 것으로 강조하면서 과학적 언어 교수법 확립에 심혈을 기울였다(Pennycook, 1994, p. 129). 팔머 이후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모색하는 여러 방식의 교수법이 창안되었지만 언어교육을 가치중립적인 교수 기술의 관점으로 보는 근본 방향은 지금까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언어습득 및 학습에서 제기되는 미시적 문제를 실험과 통계분석을 통해 설명하고 해결책을 찾는 이른바 양적 연구가 영어교육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기능주의적 언어교육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맥락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와 씨름했던 막스 베버(Max Weber)는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1917년 종전을 앞두고 베버는 독일 학생들을 상대로 학문의 길에 대한 강연을 한 바 있다. 후에 『직업으로서의 학문』으로 출판된 이 강연에서 베버는 ‘진보’의 미명아래 날로 과학화·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학문의 전반적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합리화 혹은 탈주술화(Entzauberung)로 표현되기도 하는 이

9) 미국의 대표적인 외국어교육 전문 학술지 『현대어지』(*Modern Language Journal*)는 2000년도에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의 미국 외국어교육 전반을 검토하는 특집호를 마련했는데, 그 중의 한 필자인 번즈(Heidi Byrnes)도 바로 이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실은 사회와 문화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중립적 공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교수와 학습은 이념의 무풍지대인 양 과학적 혹은 기술적 측면에만 관심을 쏟아 왔다. 교사와 교육과정에 대한 철학적 검토가 중요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다”(Byrnes, 2000, p. 491).

경향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우리의 삶의 조건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삶에서 작용하는 어떤 힘들도 신비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모든 사물은 원칙적으로 계산을 통해 지배될 수 있다”(Weber, 2006, p. 44)는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삶의 현상이 이성적 논증과 수리적 계산으로 설명된다고 해서, 배버가 우려하는 대로, 삶 전반에 대한 지식이 증대되고 그 이해가 심화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게 얻어진 기술적 지식이란 지극히 제한된 현상을 전체적 연관을 도외시한 채 분석하고 설명하는 과편화된 지식일 따름이다. 그리하여 계산적 이성으로 무장한 학문 탐구는 탐구의 궁극적 의미나 윤리적 타당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탐구를 위한 탐구에 매달리게 된다. 이처럼 그 궁극적 의의와 목적을 도외시함으로써 삶의 구체적 현실과 유리된 지적 탐구는 자칫 맹목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를 낳을 수 있다. 가령 의학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나 그런 첨단 의학이 최근 안락사 문제를 통해 드러나듯이 오히려 맹목의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환자의 고통이나 개인적인 형편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환자의 병리적 증상이나 생명의 연장에만 골몰하는 영혼 없는 의사를 우리는 전문 분야의 어디에서나 쉬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기능주의적 교수방법론이 지배하고 있는 영어교육의 현실은 배버가 우려한 대로 “영혼 없는 전문가”의 세계이기 십상이다. 영어만능주의에 젖은 사회는 쉬이 썩 먹을 수 있는 ‘실용영어’의 신속한 습득을 갈구하고 영어교육 전공자는 그런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영어 습득 방식과 학습 전략을 찾아내는 기술자로 영어교육의 일선을 선도한다. 이론과 실천의 현장은 효과적인 교수법만 찾아내면 영어는 ‘정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이 믿음은 현실적 가능성의 차원에서 보면 환상이다. 그러나 이 환상은 영어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상한 욕구 혹은 기대와 맞물리면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된다. 이 순환적 메커니즘이 우리사회에 불고 있는 영어 열풍의 동력일 것이다. 이 열풍 앞에서 효과적인 영어 학습에 대한 온갖 처방이 난무하고 저마다 영어교육 전문가인 양 백가쟁명의 의견을 제시한다. 실익은 영어교육 정책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소산이며 그 반영이다. 따라서 우리사회 영어 문제의 비등은 영어교육 전문가들이 영어교육의 사회적 의의, 목표, 방향에 대해 침묵하고 인간의 언어생활 전반에 대한 근원적 성찰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몰려든 제반 사회적 세력들의 의견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가의 문제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면 영어 학습 현장은 최신 교수법 이론과 교수 전략의 실험장이 되기 십상이다. 우리 영어교육 현장에도 그 동안 여러 교수 이론과 방법론이 소개·적용되어 왔다. 이들은 대부분 영국이나 미국에서 우리와는 여건이나 문화 환경이 다른 학습자를 위해 개발된 것들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의 무비판적 적용은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영

어교육 전문가들이 수입된 이론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변용시켜 적용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는 미지수이다. 한국의 영어교육은 1886년 육영 공원의 설립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짧지 않은 120년의 역사이다.¹⁰⁾ 영어교육이 이 땅에서 한 세기가 넘게 행해져 온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 실정에 맞는 토착적인 영어교육 이론을 기대할지 하나 이 또한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의 영어학습 방법론을 중국에 도입하여 가르친 바 있는 샘프슨(G. P. Sampson)은 영어종주국이자 선진국에서 개발된 방법론을 무조건 과학적이고 우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 어떤 교육여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환상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다(Sampson, 1984, p. 27). 우리 영어교육학계가 실용의 바람에 편승하여 해외 이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데 급급할 때 자생적인 영어교육 이론의 창출은 요원한 일일 수밖에 없다. 토착화된 창의적 영어교육이론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영어교육 전문가를 배출하려면 대학의 영어교육 전공 과정보다 기능 위주의 교수법 교과목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언어와 인간 정신 혹은 문화의 본질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과 심층적 전문지식을 두루 함양할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교육학의 이런 학문적 경향은 당연히 영어교사 양성에도 영향을 끼친다. 실용적 기능주의가 지배하는 분위기에서 영어교사는 숙달된 ‘교수 기계’(teaching machine)로 기대되고 또 그렇게 자임하기 마련이다. 학습과정은 교사의 유창한 영어능력을 학습자에게 전수하는 회화로 단순화되기 십상이다. 당연한 귀결로 학습자의 능력이나 형편, 인성이나 취향에 대한 마땅한 고려는 실종되고 만다. 영어 학습은 따라서 유형화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투적 표현의 반복 연습과 암기의 틀을 벗어나기 힘들다. 물론 외국어 학습에서 규칙의 암기와 반복 연습은 중요하다. 그러나 학습이 기능적 수행으로 구성되더라도 운영의 근본정신은 늘 그것을 넘어서 있어야 한다. 기계적인 언어 학습은 자칫 언어의 본질이나 언어생활의 근본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언어 지평은 표현과 수용 양쪽에서 모두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것이다. 이는 모국어이든 외국어이든 마찬가지이다. 외국어의 경우 제한된 언어 능력으로 인해 이 지평이 좁아 보일 수 있으나 아무리 손쉬운 표현이라도 거기에 스며있는 의미의 세계, 곧 문화적 온축은 무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외국어의 경우도 학습자나 교수자의 역량에 따라 그 지평은 좁아지기도 하고 한 없이 넓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기능적 숙련에만 치중하다 보면 의미론적·문화적 지평을 스스로 차단하고 구문과 어법의 세계에만 안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영어교육과의 교과 과정이 근래에 인문적 소양과 문화적 문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과목을 배제하고 교수법

10) 박종성. (2007). 『한국에서 영어의 수용과 전개』 참조.

계열 과목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것은 지극히 우려되는 현상이다. 어학이나 문학 교과목의 축소는 이제 국내 영어교육과의 일반적 현상이 되고 있다. 영어교육의 전문화라는 기치아래 이런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¹¹⁾ 그러나 영어교수법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또 영어가 유창하다고 해서 반드시 유능한 영어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영어 교실은 “말 연습장이 아니라 지적 체조(mental gymnastics) 연습장”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곤 했다(한학성, 1998, p. 55). 이런 비판이 이른바 실용영어 교수 일색인 오늘의 현실에서도 유효한 지 의문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사가 지적 체조를 펼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말 연습을 제대로 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종종 간과되고 있다. 그 동안 말하기와 듣기에 치중하는 구어 중심의 영어교육 덕분에 교사 및 교사 지망자들의 구어 능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또 인터넷과 각종 영상 매체 그리고 외국인과 쉬이 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구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건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날로 취약해지고 있는 것은 읽기와 쓰기 능력이다. 우리 영어교육은 이제 이 불균형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교사 양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래의 영어교육과 졸업반 중에 영어 회화는 제법 유창하게 하지만 기초적인 문법조차도 잘 모르고 따라서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학생이 상당수인 실정이다. 영어교육을 전공했으면서 세익스피어는 그만두고 영미소설 한 권도 제대로 읽어 본 적이 없는 학생이 적지 않은 것이 우리 교사 양성의 현주소이다. 영어교육학은 전문화되고 양적으로 번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어교육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고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 영어교육이 지향하는 바일지라도 가르치는 교사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네 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능력과 수준 차가 큰 학습자의 개별적인 형편과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런 유연한 마음가짐은 내면적 삶의 깊이, 곧 인문적 소양과 공감적 지성에서 나온다. 영어를 숙달해야 할 기능으로만 보지 않고 정신문화의 창으로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지적·문화적·심미적 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사 교육이 되어야 한

11) 개론적 성격의 영미문학 강좌들이 아직은 국내 대부분의 영어교육과에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명목적 교육 과정이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이다. 대부분이 선택 과목인 문학 강좌는 학생들의 기피로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문학 담당 교수의 능력 문제로 환원시켜서는 곤란하다. 이 또한 영어교육학의 전문화 강조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유행하고 있는 실용적 기능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최근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석사 과정의 한 학생이 학과에 개설된 문학 과목의 수강 여부를 묻는 동료 학생에게 “영어교수님 이론을 열심히 배워서 영어교사로서 헌신할 준비를 해야지 사치스럽게 문학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을 유심히 들은 적이 있다. 문학 과목은 영어교육에 불필요하다는 이런 오도된 생각이야말로 우리 영어교육 현장을 부실하게 만드는 한 원인은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이런 넓은 지평에 설 때 비로소 참다운 의미의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거듭 강조되어야 한다.

타고난 교사는 타고난 시인보다도 적다는 말이 있다.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일깨우는 말이다. 급변하는 시대에 이상적인 교사상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교사로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학습자를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획일화된 집단적 대상으로 보는 태도이다. 특정한 교수방법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유혹이 강한 영어 교수 현장에서 이 점의 경계는 특히 강조되어 마땅하다. 학습을 방법과 전략에 입각한 기능적인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학습 욕구의 좌절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 넘어서야 할 주제적 자기 개발의 가능성을 차단하게 된다. 영어 교실이라고 해서 다른 교과목 학습 현장과 다를 것이 없다. 영어학습도 교수와 학습자의 상호 교감 속에서 개개인의 수준과 능력과 특성과 욕구가 최대한 고려될 때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넓고 깊은 인문적 소양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교사는 자신이 처한 교실 현실에 최적의 영어교수법을 스스로 개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영어교육계는 이제 도구적 이성으로 무장한 전문 기능인이 아니라 창의적이면서도 정감적이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이런 교사를 길러내고 선양하는 체제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 박종성. (2007). 한국에서 영어의 수용과 전개. 윤지관 (편),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pp. 45-66). 서울: 당대.
- 복거일. (2003). *영어를 공용어로 삼자: 복거일의 영어공용론*.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윤지관. (편). (2007).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 서울: 당대.
- 이병민. (2003). EFL 영어학습 환경에서 학습시간의 의미. *외국어교육* 10(2), 107-129.
- 전효찬, & 최효상. (2006). *영어의 경제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최선훈. (2007). 한국사회에서 영어실력은 문화자본인가. 윤지관 (편), *영어, 내 마음의 식민주의*(pp. 105-130). 서울: 당대.
- 한학성. (1998). *영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태학사.
- Buttigieg, J. A. (1999). Teaching English and developing a critical knowledge of the global. *Boundary 2*, 26(2), 45-57.
- Byrnes, H. (2000). Shaping the discourse of a practice: The role of linguistics and psychology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MLJ*

- 84(4), 472-94.
- Crystal, D. (2002). *왜 영어가 세계어인가(English as a Global Language)* (유영난 역). 서울: 도서출판 들녘. (원전은 1998에 출판).
- Dalby, A. (2008). *언어의 종말(Language in Danger)* (오영나 역). 서울: 작가정신. (원전은 2002에 출판).
- Graddol, D. (2000). *English next: Why global English may mean the end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British Council.
- Holborow, M. (1999). *The politics of English: A marxist view of language*. Thousand Oaks: Sage.
- Illich, I. (2005). *그림자 노동(Shadow Work)* (박홍규 역). 서울: 미토. (원전은 1981에 출판).
- May, S. (2001). *Language and minority rights: Ethnicity, nationalism and the politics of language*. Harlow, Essex: Pearson Education Ltd.
- Mithun, M. (1999). *The languages of native North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nnycook, A. (1994). *The cultural politics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London & New York: Longman.
- Phillipson, R. (1992). *Linguistic imperi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ampson, G. P. (1984). Exporting language teaching methods from Canada to China. *TESL Canada Journal*, 1(1), 19-31.
- Shim, D., & Park, J. S. Y. (2008). The language politics of 'English fever' in South Korea. *Korea Journal*, 48(2), 136-159.
- Weber, M. (2006). *직업으로서의 학문(Wissenschaft als Beruf)* (전성우 역) 파주: 나남출판. (원전은 1917에 출판).

신문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7672

이메일: mshin@snu.ac.kr

Received on June 15, 2009

Reviewed on Oct 22, 200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19, 2009

Accepted on Dec 4, 2009